

승차감·연비 다 잡았다…굽이굽이 해안길 부드러운 질주

기아 첫 전기 세단 EV4 광주~영광 시승기

고요한 가속, 부드러운 제동…축간거리 동급 최대 2820mm
회생제동 기능 장착…페달에서 발 떼는 동시에 배터리 충전
차량 내부 곳곳에 친환경 소재 사용…진정한 친환경 전기차
뒷자석 성인 남성 여유 있게 다리 뻗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조용함이 주는 힘, 전기차가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주행이란 이런 것일까.

지난 13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영광 백수해안도로까지 왕복 110km의 여정은 EV4가 가진 전기차의 장점을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엔진 소리 대신 고요한 가속, 달력이는 변속 대신 부드러운 제동이 공간을 채웠고, EV4는 전동화 세단이 나아갈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이날 시승한 모델은 EV4 롱레인지 트림. 전장 4730mm, 전폭 1860mm, 전고 1480mm의 체격은 준중형급이지만, 세단 특유의 길고 낮은 비율이 눈에 띄었다. 축간거리(휠베이스)도 동급 최대 수준인 2820mm로 실내 공간의 여유를 뒷받침했다.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세로형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룬 전면은 세련미를, 패스트백 스타일로 짧게 마감된 후면부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역동성을 강조했다.

동승자 3명과 함께 차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간의 여유로움이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성인 남성이 앉아 여유 있게 다리를 뻗을 수 있을 정도였다.

시승 구간인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멋진 풍경과 이어지는 굽이굽이를 갖춘 드라이브 명소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커브와 굴곡진 경사가 운전의 재미를 더한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변속으로 인한 엔진음으로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구간이기도 하다.

이날 광주 도심에서 빠져나와 한적한 해안길을 돌고 다시 광주로 향하는 여정 동안 EV4는 마치 도로와 한 몸이 된 듯 고요하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소음 없이 이어지는 주행, 커브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유연한 바디,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는 핸들링까지 완벽했다.

EV4는 특히 곳곳에 복잡한 노선을 숨겨놓은 백수해안도로를 마치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주행했다.

고저차가 많은 노면에서도 저중심 설계와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차체 흔들림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핸들링으로 이어졌다. 전기차의 무게중

심이 낮다는 특징이 커브와 굴곡 구간에서는 큰 강점으로 작용하는 듯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능은 회생제동 시스템이었다. 회생제동은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돌려주는 기술이다.

백수해안도로 특유의 경사로와 감속 구간에서 회생제동 기능은 전기를 발휘했다. 페달을 떼면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고, 동시에 배터리 충전이 이뤄지며 주행가능 거리 수치도 늘어났다.

시승 전 말로만 들었을 땐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주행 중 주행가능 거리 숫자가 줄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걸 보자 그제야 이 기능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V4는 또 'i-페달 3.0' 시스템을 통해 가속 페달 하나로 감속부터 정차까지 가능한 '원 페달 드라이빙'을 구현했다.

단계를 조절하면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제동이 걸리며, 브레이크 타이밍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브레이크에 익숙하지 않거나 주행 피로도를 낮추고 싶은 운전자에게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시승 전 421km였던 주행 가능 거리는 광주에서 영광까지 약 55km를 달리고 나서도 360km 이상 남았다. 성인 4명이 탄 점을 고려하면, 회생제동 덕분에 주행가능 거리를 보전한 것이다.

EV4는 차량 내부 곳곳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띄었다. 재활용 플라스틱과 옥수수·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인조가죽, 페페트빙을 재활용한 섬유 등이 인테리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앞좌석은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과 회전형 팔걸이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뒷좌석에는 콘센트를 뒤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한 점도 만족스러웠다.

모든 게 좋았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미세한 소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 특유의 '너무 조용해서' 들리는 잡소음이 거슬렸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난 13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영광 백수해안도로까지 운행한 기아 최초 전기 세단 EV4.

(기아 제공)



기아 최초 전기 세단 EV4 내부.



기아 EV9, 볼보·아우디 제쳤다



기아 EV9

독일 등 글로벌 자동차 매체 평가 편의성·주행 성능 등 더 높은 점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글로벌 자동차 전문매체가 시행한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럭셔리 브랜드와의 비교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일 기아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매체 아우토티트는 최근 EV9 GT라인과 볼보 EX90 트윈 모터 사륜구동(AWD) 두 모델의 일대일 비교 평가를 한 결과 EV9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편의성, 주행 성능, 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EV9은 총 589점을 받아 571점을 받은 EX90을 제쳤다.

아우토티트의 실측 결과 EV9은 EX90보다 모터 최고 출력이 낮은데도 더 빠른 가속 성능을 구

현했고 실주행 전비는 약 20% 높았다.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의 충전 속도도 EV9(24분)이 EX90(32분)에 앞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고효율 전동화 시스템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EV9은 전장은 약 20mm 짧지만 축간거리가 115mm 길어 3열 및 적재 공간 활용성이 우세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2만유로(약 315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대로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독일 매체 아우토티아퐁은 지난해 벤츠 EQS SUV (450 4매트), 아우디 Q8 e-트론(55 와트)와의 비교 평가에서 EV9 GT라인을 1위로 선정했다. 아우토티아퐁은 "EV9은 독일 프리미엄 전기차와의 비교 평가에서 우월한 자격이 충분하고, 특히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EV9 GT라인이 국내 기준 각각 약 2배, 1.5배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EQS SUV와 Q8 e-트론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EV9은 또 2023년 6월 출시 이후 2024 월드 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 2관왕에 올랐으며 지난해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영국 올해의 차' 등에도 선정됐다.

안전성 부문에서도 EV9은 미국·유럽·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아 관계자는 "EV9은 잇따른 수상과 호평을 통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브랜드 전동화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 중심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기차 대중화 '비밀병기' 기아 EV4 출시

광주시민 3000만원 중반대 구매

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

기아는 EV4 출시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V4는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과 81.4kWh 배터리를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로 출시됐다. 2WD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각각 382km(스탠다드), 533km(롱레인지)다.

롱레인지 모델은 자체 측정 기준 350kW급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1분이 소요된다. EV4 스탠다드 및 롱레인지 모델의 복합 전비는 기아 EV 라인업 중 가장 높은 5.8km/kWh를 달성했다.

EV4 외장 색상은 모닝 헤이즈, 마그마 레드, 요트 블루(무광), 스노우 화이트 펄, 아이보리 실버(유광·무광), 셰일 그레이, 오로라 블랙 펄 등 총

8가지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스탠다드 모델은 에어 4192만원, 어스 4669만원, GT 라인 4783만원, 롱레인지 모델은 에어 4629만원, 어스 5104만원, GT 라인 5219만원이다.

광주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770만~88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000만원 중후반대로 실구매할 수 있다.

기아는 고객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차량 가치 절고를 돕는 '멀티플 케어 프로그램'도 출시한다.

올해 상반기 출고 고객 중 기아의 대표 금융상품 'K-Value' 유예형 할부 프로그램 가입자 대상으로 3.9% 특별금리(36개월), 3년 60% 잔존가치 보장,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라이프 케어 솔루션 3년 무상 제공(월 1만 2100원 상당), 배터리 관리목표 달성 리워드 200만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충전과 차량 케어, 중고차 가격 보장 등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혜택을 담은 'e-라이프 패키지'를 통해 고객에게 편리한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김해나 기자 khn@



기아 EV4.